

## 포티에즈씨와의 대답<sup>1)</sup>

원운수 : 오늘 저는 당신과 프랑스의 정신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프랑스의 지식인으로서 당신은 이 단어에 어떤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포티에즈 : 오늘날 '지식인'이라는 단어의 정의나 프랑스, 혹은 전세계에서의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지식인의 본질 자체와 마찬가지로 그 역할도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라루스 사전을 찾아보면 물론 지식인이란 사물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마음을 단련시켜야 하고 또한 행동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원하신다면 지식인에 대한 개인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즐겁게 사고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 (celui qui empêche de penser en rond)'. 이는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방해하다 (empêcher de danser en rond)'라는 불어의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이란 남들이 즐겁게 사고하는 것을 방해하는, 다시 말해 관습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사람, 당신을 미래로 이끌어내고 앞으로 옆으로 끌어당기고 미래 속으로 잡아당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의 지식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원운수 : 제 생각에는 보편적인 경향과 전형적으로 프랑스적인 경향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포티에즈 : 사실 '지식인'이란 단어는 불어단어입니다. 그것은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18세기에 프랑스인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1) 포티에즈(Jean-Marc Pottiez)씨는 프랑스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동경 특파원을 지낸 언론인, 동경 유엔대학에서 시창각 및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있으며 자유기고가로 여러 저서가 있다.

볼테르, 루소, 그리고 백과전서과들의 전통 속에 있는 것이지요. 물론, 르네상스의 전통에도 속합니다. 프랑스는 언제나 계몽의 나라, 빛과 지성의 나라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프랑스인들은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이 최초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 이전에도 빛이 있었습니다. 지식도 지성에의 숭배도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대광장에서 철학자들에 의해 그러한 것들이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로마에도 수사학자들의 전통 즉, 변호사, 철학자, 로마 역사가들의 수사학의 위대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지식인의 고유한 기능을 체계화하려는 전형적으로 프랑스적인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인은 독방에 있는 수도승처럼 고립되어 있는 한 인간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아탑 속에 고립되어 있으며, 수도승이 명상을 하듯이 지식인은 이해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내부에 있는 세계를, 그리고 그의 주변에 있는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조개가 자신의 껍질을 만드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랑스식 지식인의 첫번째 기능입니다. 두번째 기능은, 이것도 프랑스의 전통인데, 지식인은 사회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흔히 사람들이 빅토르 위고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동대, 빛의 역할을 합니다. 그는 민중을, 자신의 동향인들을 빛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해야 했으며, 지금도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로마와 그리스의 사회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전통입니다. 프랑스에서 지식인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세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지식인은 미래를 탐색하는 자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는 견자입니다. 더욱 멀리 보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내일만이 아니라 모래도, 가능하다면 10년, 20년, 30년 후까지도 내다봐야 합니다. 실제로 프랑스식의 지식인은 어느 정도 예언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형적으로 프랑스적인 지식인의 소명입니다. 현재의 보편적인 경향은 아마도 완전히 반대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밝혀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존재하는 프랑스 고전주의적 전통입니다. 지식인은 자신을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에 빛을 주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그는 어떤 사회적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보편적인 전통, 보편적인 경향은 현대 세계에서 지식인을 덜 필요로 함에 따라 이

모든 것과 다소 배치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기계가 있고 컴퓨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 있습니다. 또한 대중 매체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세기, 우리의 시대가 개인 간이든 국가 간이든 통신 위성망과 전화, 텔레кс, 팩시밀리 등에 의해 특징지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제, 개발, 상업 뿐만 아니라 사고의 계몽을 위해 동시에 사용되는 어떤 망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지식인이라는 것은 역설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매우 어려운 하나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지식인에 대해 약간의 존경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명이 매우 어렵고, 어떻게 보면 부조리하기 때문입니다. 실상 지식인이란 우리가 기계에 의해 지배되지 않게, 공업기술과 이데올로기, 정치, 광고, 냉혹함 혹은 증오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주어야 할 사람이니까요. 바로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프랑스의 인문주의적인 개념과, 유감스럽게도 지금 전세계의 일반적인 경향인 기계적 혹은 기술적, 공업기술적 개념 사이의 차이입니다.

원윤수 :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프랑스 젊은이들의 정신 상태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포티에즈 : 물론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좀 수정해서... 거기에 아주 꼭 들어맞는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팬찮으시다면, 저의 한계를 조금 고백해야겠습니다. 저는 프랑스의 젊은이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프랑스에서 별로 살지를 않았거든요.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지만 프랑스에 오랫동안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프랑스에는, 한국이나 전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젊은이들과 그보다 나이든 사람들 사이에 단절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이지요. 그러나 저의 관점은 프랑스든 다른 나라든 젊은이들이 엄청난 양의 지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지식들 덕분에, 또한 공업기술 운동과 발전 덕분에 특히 통신의 영역에서 젊은이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눈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정한 교체입니다.

사람들은 바다 위의 파도처럼 세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늘 갖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위험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파도도 있습니다. 끝까지 밀려오지 못하고 거품으로 끝나고마는 파도와 부서지는 파도들도 있습니다. 결국 간단히 말해서 세대 간에 변함없는 연속성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저는 인간의 발전에는 비약이 있으며, 실제로 오늘날 젊은이들은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 우리와 닮았다 할지라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우리와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심지어 다른 혹성에서 왔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지식을 그들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픽 드 라 미란돌(Pic de la Mirandole) - 픽 드 라 미란돌은 중세의 이탈리아인이었습니다 - 과 같은 백과전서적인 한 천재가 오늘날 되살아난다면, 그는 우수한 혹은 중간 정도의 고등학생에 불과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대학에도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발전 속에서 두뇌가 대단한 비약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랑스의 젊은이들도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마약 문제, 알콜 중독의 문제, 동기 부여의 문제, 일자리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그들이 언제나 진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도와줄 작은 빛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의 세대와 그 이전의 모든 세대들과의 차이는,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저는 한국의 젊은이들, 미국의 젊은이들, 일본의 젊은이들, 그리고 전세계의 다른 모든 젊은이들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만,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단지 진리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가 지금, 오늘 당장 입증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지식인들에게로, 책에게로, 조연자들과 전문가들에게로 가지만, 사실에 의해 입증될 때에만, 그리고 그들에게 영양제를, 다시 말해 그들을 발전시켜줄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져다줄 때에만 사상과 충고와 권고와 진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르고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프랑스 젊은이들이 가진 이런 종류의 조급함은 젊음의 징표이면서 또한 지혜

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더 이상 공중 앞에서, 젊은이들 앞에서, 그 사회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사유할 수가 없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분명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이 그의 제자들 앞에서, 플라톤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편 저는 예전에 바슐라르, 가스통 바슐라르와 베르그송의 제자이며 따라서 정신주의자이고 형이상학자인 한 철학 교수를 알았습니다. 그 철학 교수는 늘 철학자의 고유성은 생각하는 바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록이나 팝 스타처럼 무대에 올라가 그가 훌륭한 철학자 혹은 훌륭한 지식인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것은 끝이 났습니다. 1968년 5월 이후 프랑스에서는 아마도 끝이 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젊은이들과 교수들 사이의 관계, 특히 프랑스의 젊은이들과 지식인들 사이의 관계는 위계질서가 정해진 이론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는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 나는 전세계의 다른 모든 젊은이들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 누군가로부터, 어떤 지식인이나 전문가로부터, 혹은 어떤 다른 지식의 담지자로부터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프랑스의 젊은이들은 순수한 두뇌에 대한 존경심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식인들을 위해 표명된 모든 사상들이 전통에 의해, 또한 현재의 경험 속에서 스스로 입증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프랑스의 교육은 특히 68년 5월 이후 많이 바뀌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교수는 더 이상 교실에 들어가서 가방을 올려놓고 그의 책을 꺼내어, 흔히 사람들이 말하듯이 *ex cathedra*, 다시 말해 강단 높은 곳에서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교수가 학생들에게로 가서 그들과 함께 거닐어야 합니다. 하기가 바로 이것이, 당신도 아시다시피 철학자로서 소크라테스가 한 것이긴 합니다. 그는 철학을 좋아했고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이끌면서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이 대화법은 플라톤에 의해 이어져서 그 후로도 계속 이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프랑스 젊은이들입니다. 이상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원윤수 : 오늘날과 미래의 프랑스 문명을 형성시켜온 이러한 정신의 과거를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첫번째 질문이고 두번째 질문은, 당신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정신이 통합유럽, 다시 말해 건설 중에 있는 새로운 유럽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습니까?

포티에즈 : 그것은 역사적, 문화적인 참고 자료들을 요구하는 방대한 질문이군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프랑스의 정신을, 빵과 빵의 소비가 전형적으로 프랑스적인 것이므로 하나의 이미지를 들어본다면, 프랑스의 정신을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오르게 하는 효모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모는 빵을 만드는 데 쓰이고 빵의 반죽을 부풀어오르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프랑스의 역사, 프랑스 문화와 전통의 역사 속에 나타난 정신입니다. 처음에 프랑스는 야만족이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 나라는 야만적인 방식으로 식민지가 되고 침략을 받았으며 점령당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는 지리학자인 앙드레 지그프리드 André Siegfried가 말한 것처럼 지리학적으로 유럽의 끝, 유럽의 갑(岬)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프랑스로 오고 온갖 이동과 온갖 침입이 일어난 곳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들은 바다에 대항해서도 싸웠습니다. 북해, 대서양, 지중해 등. 따라서 프랑스는 일종의 유럽의 갑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유럽의 도가니입니다. 여러 민족, 여러 문화, 여러 세력들이 뒤섞여 있는 도가니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바로 이것이 프랑스입니다. 문화적, 교화적 역할을 하기 위해, 성숙하기 위해 프랑스는 여러 영향들을 끌어 모아 기발하지는 않을지라도 어쨌거나 독창적인 정신과 영혼을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가지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중세 동안 빛을 발했던 빛과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 빛은 여러 재사들이 머물렀던 수도원에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있었고 연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불꽃을 지켰던 것은 카톨릭과 기독교 교회입니다. 물론 어떤 방식으로든 불꽃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왕들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중세에 유럽은 하나의 거대한 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교류를 했고 학자들, 사상가들은 서로 의견을 교환

했습니다. 또한 물론 르네상스가 있었고 18세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 이것은 전형적으로 프랑스적이고 유럽적인 것인데 - 프랑스의 출혈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웃 유럽의 나라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제 1,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식민지 전쟁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들은 프랑스의 재산에 매우 큰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과 재산, 부를 파괴했으며 수재들과 인재들을 죽였습니다. 저는 19세기까지 전세계에 빛을 주었던 이 프랑스적인 정신이, 이 불꽃이 점차로 잦아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것이 이러한 출혈, 정치, 끊임없는 전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신에 있어서 끔찍한 것은 정신과 진보 사이의 끔찍한 전투입니다. 한 인간 안에, 혹은 한 사회 내에, 혹은 하나의 문화 내에 억압하는 힘들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창조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예전처럼 창조적일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빈사상태에 있을 때, 곧 죽게 되었을 때 작곡을 계속해야 할지, 자신의 아내를 돌보아야 할지를 자문했던 베를리오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나 이것이 지식인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는 예술가처럼 말하는 것이고, 저는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예술가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지만, 내 주위에는 피로 가득찬 육조가 있으며 온갖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늘 프랑스는 지적인 전투를 이끌어가고 다른 나라들에게 작은 빛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프랑스는 언제나 전통적인 안식처, 정치적 망명지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차츰 차츰 몸을 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프랑스는 6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 즉 출혈과 전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몸을 움크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인들이 때때로 지나치게 겁이 많은 것도 그 이유입니다. 지나치게 겁이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창조하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니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프랑스인들이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느리고, 그렇죠? 힘들게 소화할 시키는 나머지 '납으로 된 엉덩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사람은 제 기억으로는 니체였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프랑스인들이 60년대까지, 흔히 점점 작아지는 '오톨도톨한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어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점점 축소되고 프랑스 본토에 웅크리고 앉아 더 이상 밖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오늘날 프랑스에는 더 이상 사르트르나 카뮈, 말로와 같은 재능있는 인사들, 위대한 지식인들, 위대한 등불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재능있는 인사들, 위대한 지식인들, 위대한 등불들이란 언제나 도전과 난관, 시련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써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사르트르, 말로, 카뮈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작가들이 전쟁으로부터 탄생했다는 것은 제 생각만은 아닙니다. 매우 평화로운 상태에서, 매우 안락한 상태에서 창작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오늘날까지 지나치게 안일했으며,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의 게으름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북아프리카 전쟁,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인한 출혈의 희생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프랑스는 아시아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프랑스는 좀 더 작아졌고 덜 빛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당신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곧 유럽이, 새로운 유럽이 생겨나는 것이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연방 말입니다. 프랑스처럼 세계적으로 가장 피를 많이 흘린 유혈 전쟁의 장이었던 유럽이, 그 낡은 유럽이 바야흐로 새롭게 태어나려 하고 있으므로 그것은 일종의 행운인 것이지요. 이는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또한 전 세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유럽 통합이라는 생각은 당신도 아시다시피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대로 매우 오래 전부터 있어온 생각입니다. 샤를마뉴 대제는 대유럽을, 유럽의 통일을 이루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샤를 5세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였고 나폴레옹도 물론 그의 방식대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히틀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매년 이러한 시도들은 실패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단지 그들이 역사를, 세계를 만들 수 없었다는 것, 역사를 바꾸지 못했고, 유럽 시민들의 의사를 거슬러 가면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힘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불행과 가난과 전쟁의 경험을 가진 유럽 시민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경계를



잊어버리는 것임을 납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신분증을 가지고 그들은 쉽게 런던에서 파리로, 마드리드로, 주네브로, 브뤼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1992년 유럽 단일시장이라는 것이 생겨날 것이고 모든 상품들, 소비 상품, 산업 생산물이 자유롭게 유럽에서 유통될 수 있을 것이며 경계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곧 유럽인들은 단일 화폐, 금융, 정치의 유럽을 형성해야만 합니다. 아마도 20년, 30년, 40년 안에, 2020년에는 그것이 형성되지 않을까요? 목표는 확실합니다. 그것은 필히 연방화된, 위대한 정치적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유럽에서 프랑스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저는 프랑스가 자신의 능력과 재능, 특히 양식을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한국처럼 농업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니까요. 사실 정말로 프랑스를 만든 것은 프랑스의 농부들입니다. 이 거대한 유럽의 정치적 통합체에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프랑스는 관용의 미덕을 활용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또한 다른 나라들에게 대서양 저편으로부터 건너온, 아프리카와 아랍 세계로부터, 혹은 아시아로부터 다가오게 될 영향, 사상, 가치들에 대해 개방적이 되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메리카와 대통령제들, 대륙, 그리고 미국이나 소련, 중국과 같은 커다란 정치 체제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의 유럽을 만들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우리의 모든 열정과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중앙집중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가령 관료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밖으로 나와 거리로, 농촌으로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하는 테크노크라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바로 이것이 내일의 유럽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치, 경제, 재정, 통화의 통합체를 만드는 것이 더욱 안전하고 논리적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는 모든 프랑스인들, 독일인들, 그리고 모든 영국인들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영국인들이 가진 은밀한 꿈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유럽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최종적으로

로 영국인들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스위스나 스웨덴, 중소 국가들의 예를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술, 경제, 상호의존이 가지는 중요성에 의해 물론 서로 뭉쳐야 하지만 또한 작은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래의 유럽에서 예를 들어 저는 문화적 친화력에 의해 일종의 재편성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매우 뚜렷이 간파하고 있습니다. 브르타뉴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문화적 관점에서, 또한 상업적, 정치적 관점에서도 웨일스 사람들 혹은 아일랜드 사람들, 말하자면 켈트족의 세계와 통합되어 가는 것을 뚜렷이 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바스크인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에스파니아의 바스크인들과 통합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니스인들이, 프랑스 쪽의 코트 다쥐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탈리아에 통합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브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 통합될 것이고... 알자스 사람들은 이미 독일인들에게 통합되었고, 로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부지역은 벨기에와 통합되죠. 그러므로 결국 통합유럽은 프랑스에서 이미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인들, 벨기에인들, 스위스인들은 우리의 각 지방들이 중개가 되어 이미 프랑스에 한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장된 유럽에는 여러 당파들이 산재하게 되고, 지리적인 지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지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사실로서, 프랑스의 지식인들이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이데올로기들, 경계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로 달라질 것인가가 문제이지요.

<문경자 역>